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제 39 - 40 호

2022년 10월 2일

- 10월 공동체 중요 일정입니다.
- 1) 2일 <세계성찬주일> 오전: 입교식. 세례식. 성찬식 / 오후: 사랑방운동회
- 2) 16일 <기독교교육주일> 오후: 특강 ‘사랑방공동체 성서연구’
- 3) 17일(월)~23일(토) <기독교교육주간> 매일 오전 6시: 새벽기도회
- 4) 30일 <종교개혁기념주일> 오후: 공동체 전체모임 ‘의제’ 선정
- 꾸러기학교 ‘아빠와 함께 하는 캠프’가 2일(일)~3일(월) 학교에서 있습니다.
- 멋쟁이학교 5학년 학생들이 해외공동체방문을 위해 4일(화) 출국하여 11월 5일(토) 귀국합니다. 유럽 5개국을 여행하며, 부르더호프공동체와 떼제공동체를 방문합니다.
- 공동체학교 선교바자회 7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3시까지 열립니다.
- 황성자사모님(최요한목사) 모친 장례식이 1일(토) 있었습니다.
- 김용필집사님이 4일(화) 수술 하십니다. 기도해주십시오.
- CTS기독교방송에서 30일(금) 뉴스시간에 사랑방공동체학교를 소개하였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사랑방운동회 도시락

강단을 꽃으로 : 사랑방운동회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맛있는 빵과 잘 익은 포도주

오늘은 세계성찬주일입니다.

매년 10월 첫 주는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안에 한 형제자매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주일로 지냅니다. 세계성찬주일은 1933년 미국의 한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전미 기독교협의회에 따르면 세계성찬주일은 1936년 미장로교회에 의해 다함께 지내기를 알리며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1940년이 되어서는 전미 기독교 협의회에 의해 교회력에 포함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이후로 세계성찬주일은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함께 지키며, 나라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교단도 다르지만 우리가 믿는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됨을 고백하며 교회 연합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930년대는 세계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의 어려움을 돕던 미국의 증시가 1929년 폭락하며 미국 경제의 공황이 시작되었고 이 영향으로 전 세계가 경제 대공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여전히 유색인종차별이 극심했던 미국에선 경제 대공황 속에 부동산 정책에 따라 흑인들의 거주지와 백인들의 거주지를 구별하고, 식당과 대중교통 및 모든 곳에서 차별과 계급을 나누었습니다. 그로부터 30여년이 더 흐를 때까지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고통과 단절, 차별과 다툼 등 하나됨과는 너무 멀게 느껴지는 상황 속에 미국의 한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안에 하나 됨의 고백은 많은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성찬일까요? 예수님께선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선 유월절 식사를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새언약을 세우십니다. 이집트 땅에서 짐승의 피를 발라 구원의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우리는 새로운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방공동체는 '땅에 있는

선교와 섬김

하늘나라'의 사명을 받은 곳입니다. 하늘나라는 장소에 있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삶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선 믿는 이들의 서로의 섬김과 자기희생이 필요합니다. 성찬 때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빵과 포도주에서 밀 알갱이와 포도 한 알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밀 알갱이 하나하나가 함께 뭉아지고 뜨거운 온도에서 함께 구워지는 시간이 흘러 하나의 빵이 되어집니다. 포도 한 알, 한 알이 씻겨지고 으깨지고 시간이 흘러 한 잔의 포도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없어지는 거 같고 손해 보는 거 같지만 밀알과 포도 알처럼 함께 어렵고, 즐겁고, 뜨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빵이 되고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라고 합니다.

믿음 안에 이루어진 공동체, 성숙된 공동체, 더 맛있는 빵, 잘 익은 포도주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뭉아지고, 뜨겁게 구워지고, 깨끗하게 씻겨지고, 시간을 기다려 숙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과 시간 속에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기억하며 끝까지 기다리고 바라야 할 것입니다.

1년 전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며 나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취미하나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별거 아니네, 나도 되네? 라는 생각에 신기한 마음으로 꽤 구웠습니다. 그때까지 한식이 손이 많이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 빵은!! 손은 좀 덜 같지 모르지만.. 반죽을 숙성시키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빵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길게는 8시간 정도 숙성을 시켜야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 빵 하나 먹는 건 금방인데 빵 만드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빵을 굽지 않습니다. 그냥 사다 먹습니다. 숙성시간을 기다릴 인내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사람들과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위해서는 함께 빵도 되고, 포도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과 단절, 차별과 다툼이 아닌 기쁨으로 함께 섬기고 기꺼이 우리를, 나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됨을 고백하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다운 전도사

## 한주간의 말씀

“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성경 : 사사기 4장

제목 : 사사 드보라

인도 : 권재만 목사

찬송 : 254 94 262 219

#### 1. 관찰]

- 1] 1~3 이스라엘의 고통
- 2] 4~10, 12~16, 23~24 구원의 역사
- 3] 11, 17~22 야엘이 시스라를 죽임

#### 2. 해석]

- 1]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해 명령하시고 먼저 준비하셨다.
- 2]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군 지휘관인 시스라를 죽임.
- 3] 시스라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은 가나안 세력을 밀어냈다.

#### 3. 적용]

- 1]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신다.
- 2] 그 방법은 우리가 생각치 못한 방법일 때가 많다.
- 3]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 꾸러기와 함께 해온 삶

오전 8시 40분 알람이 울리면 집을 나설 준비를 합니다. 경기도 의료원 포천병원 맞은편 정류소에서 56-1번 버스를 탑니다. 전곡역에서 출발한 버스는 송우리 홈플러스와 영화아파트를 끼고 돌아 다시 전곡으로 갑니다. 홈플러스에서 내려 조금 걸어 소흘읍사무소 앞에서 길을 건넙니다. 거기서 노란 꾸러기차를 만나서 타고 초가팔리에 사는 꾸러기를 태우고 비독재를 넘어 직동삼거리에서 남양주에 사는 꾸러기를 태우고 무림리로 가서 자연에배당에 들어서면 10시 2~3분 전. 그렇게 꾸러기와 함께하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첫째를 꾸러기학교에 보내느라 사랑방교회를 알게 됐고 10년이 좀 지나 세 아이가 멋쟁이학교와 어린이학교에 다녔는데, 무림리에 살던 여름에 갑자기 꾸러기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8살 어린이학교 1학년이던 막내가 이제 멋쟁이학교를 졸업하고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꾸러기학교에서 그리고 어린이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음악, 미술, 체육은 팽이었는데, 꾸러기들이랑은 노래도 부르고 그림도 그립니다. 서른아홉이 되도록 성공하지 못했던 공 던지기, 튕기기, 받기, 줄넘기 뭐 그런 걸 다 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산동네에서 살았지만 밤나무랑 도토리나무를 구별하지 못하고 아는 풀은 환산덩굴과 강아지풀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름을 아는 풀꽃들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느라 이것저것 찾아 배우게 된 덕분입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다며 세상 소식은 적당히 외면하고 살았는데, 교사가 세상을 모르면 곤란하다는 생각에 뉴스를 챙깁니다. 잠자리를 가리는 탓에 집 나서면 사흘쯤 거의 안자고 다녔었는데, 이젠 아무 데서나 잘 잡니다.

학교에는 '거울'이 아주 많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 학부모 한 분 한 분에게서 어릴 적 나부터 지금의 나까지가 보입니다. 그때 내 주변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라고 새삼스레 느끼게 됩니다. 살면서 주고받았던 많은 상처들을 비로소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학교에는 '충전기'도 아주 많습니다. 함께 일하는 교사들, 학생들, 학부모님들. 모두가 제가 방전되지 않게 적절히 충전을 해줍니다. 늘 부족한 나를 보지만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의탁드림으로 채워갑니다.

교육공동체 정승희 집사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시편 133 : 1-3	인도자
* 예배의 찬송	37	다함께
* 기원의 기도		인도자
* 기원찬송	영광 영광	다함께

###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고린도후서 5 : 17	인도자
* 용서의 말씀		다함께
* 신앙고백	407	다함께
고백의 찬송		다함께
공동기도		인도자
목회기도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고린도전서 11 : 23-26	설교자
성가대 찬양	270	사랑방
설 교	“ 섬김으로 하나 되십시오 ” 정재훈 목사	
	<세례식, 성찬식>	

###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설교자
응답의 찬송	288	다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 영광찬송	516(1)	다함께
* 위탁의 말씀		설교자
* 강복기도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중필 이현숙 / 봉헌위원 : 이어직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 공동기도문

저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 성령께서 저희를 섬김의 자리로 인도하소서. 아멘.

## 섬김으로 하나 되십시오

성만찬의 오용.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때, 잘못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이지 않게 파당이 생기고 분열이 있고, 어려움이 생겨났습니다. 사도바울은 이 점을 꾸짖으면서, 주님의 만찬이 가지는 본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성만찬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으로 하나가 됩시다.    원래 발을 닦아주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지만 서로 종노릇함으로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합니다.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기억하여,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가서, 공동체의 약한 부분을 살피고 세우도록 합시다. 먼저 몸을 움직여서 공동체의 필요를 살피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 됩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나송주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지난 화요일에 꾸러기들은 가평에 있는 이탈리아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이탈리아마을은 이탈리아 작가 카를로 콜로디의 소설 <피노키오>와 이탈리아가 낳은 위대한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콘텐츠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피노키오가 마침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라고 꾸러기들에게 물어보았는데 한 친구가 “할아버지의 마음, 사랑 때문예요.”라고 답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답이지요! 피노키오 이야기의 여러 장면을 그린 다양한 그림과 인형, 책을 구경하고 점심식사는 이탈리아마을에 왔으니 피자과 파스타를 먹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음악에 맞추어 춤추는 마리오네트 공연을 보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여러 작품들도 보았습니다. 꾸러기들에게 ‘최후의 만찬’은 중남미문화원에서 본 적이 있어 익숙한 그림이었습니다. ‘모나리자’ 작품 앞에서 어떤 친구는 눈썹을 가리고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즐거운 나들이였습니다.

목요일에는 고구마를 캐습니다. 장갑을 끼고 호미를 들고 고구마 밭으로 가서 열심히 고구마를 캐습니다. 엄청 큰 고구마, 뱀처럼 긴 고구마, 양파처럼 생긴 고구마 등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고구마를 발견한 꾸러기들은 신이 났습니다. 고구마는 어디에 있을까 열심히 찾다가 어느새 고구마 캐기는 잊어버리고 털썩 주저앉아 넷이서 호미로 땅을 파며 한참 즐겁게 놀았습니다. 마무리는 영차영차 고구마를 담은 바구니를 함께 들고 옮겼지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논 꼬마 농부들 수고했어요!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예쁘고 멋진 아이들!! 예쁘고 멋진 하늘!! 예쁘고 멋진 공동체!! 이런 환경에서 생활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공동체 큰 텃밭에서 자란 고구마를 금요일 날 캐습니다. 먼저 교무실 앞에서 고구마를 캐는 순서와 맡은 역할을 인지하고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6학년 친구들이 먼저 고구마 순을 걷어내고 비닐을 벗기고 동생들이 차례대로 호미와 삽으로 고구마를 대합니다. 파도파도 고구마가 숨바꼭질을 하고 싶어하는지 보이지 않고 깊숙이 박혀 있어서 어린이들이 하기에는 좀 힘들었습니다. 보다 못한 나집사님께서 오셔서 낮으로 순을 쳐 주시고 아이들이 배움과 가르침

고구마를 대충 캐 놓으면 경운기로 다시 캐 주셨습니다.. 아이들은 경운기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웠습니다. 그리고 큰 오빠들은 뒷정리를 하느라 리어카를 가져와서 다른 밭에 고구마 순들을 나르기도 하고 비닐도 정리하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작년보다 소출이 좋지 않아 좀 아쉽긴 하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예뻐했습니다. 다 마치고 선생님께서 사주신 아이스크림 맛을 꿀맛이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감기로 쉬고 있는 친구들이 언능 나아서 함께 학교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바자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 교사 : 이현숙 >

멋쟁이학교

지난주는 해외 문화체험학습을 마치고 돌아온 4학년과, 곧 유럽 공동체 탐방을 떠날 5학년 멋쟁이들이 함께하는 2학기 첫 주간이었습니다.

열린 수업 시간에 4학년들의 해외 문화체험학습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이스탄불의 돌마바흐체 궁전에서 찍은 사진, 파묵칼레에서 온천욕을 하는 사진, 누가의 묘, 에베소, 사도요한 기념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 예수님의 발자취를 볼 수 있었던 사진, 숙소에서도 길에서도 원카드를 하며 재밌게 노는 사진들을 보며 생생한 여행 후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고를 듣는 멋쟁이들은 처음 보는 음식, 멋진 유럽 곳곳의 풍경을 보며 신기해하고 부러워하기도 하였습니다. 멋쟁이학교에서 오랜만에 떠났던 해외 여행이었기에 더 새롭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는 멋쟁이들이 좋아하는 생일파티가 있었습니다. 생일파티는 매월 생일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열립니다. 간식을 먹으며 생일자들에게 편지를 써주기도 하고, 친교부 주관으로 즐거운 레크리에이션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생일파티에는 조금 특별하게 잠옷파티를 주제로 정해 모두 잠옷을 입고 참여했습니다. 간식으로는 과자와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온 학교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즐겁고 재미있는 생일파티를 한 것 같습니다. ^..^

이번 주 월요일은 개천절로 저녁에 등교합니다. 화요일은 5학년이 유럽 공동체 탐방으로 약 한 달간의 여행을 떠나는 날입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오는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5학년과 동행하시는 정재훈 선생님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 교사 : 박에나 >

## 사랑방공동체 지체들께 감사드리며

여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쌀쌀한 밤바람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 멋쟁이학교 4학년이 귀국하며 한동안 학교는 반가움으로 시끌벅적했습니다. 멋쟁이들이 여행보고회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습니다.”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거기에 ‘감사합니다’는 그림자처럼 따라 붙었습니다. 그리고 4학년 멋쟁이들이 고심 끝에 고른 맛있는 선물들이 나누어졌습니다. 카카오 함유 72%의 씹쓸한 초콜릿을 한 입 물었지만, 느껴진 것은 행복감이었습니다. 자신이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주변에 감사를 표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사뭇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을 둘러보니 일상의 풍경 속에서 색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누군가가 타인을 위해 먼저 행동에 나선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 봉사의 흔적들이, 함께 살아가는 삶을 더욱 벽찬 감동으로 일깨우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매일 공동체 식구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밥을 준비해주시는 분들. 필요에 응하느라 늦게까지 불을 끄지 않고 일하시는 분. 사람만이 아니라 동/식물까지 채워주시는 분. 두 개의 학교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빈 곳을 묵묵히 채우시는 분. 서류더미에 파묻혀 온갖 행정 일에 참여하시는 분. 아프건 아니건 예배 준비에 진심으로 임하시는 분. 매주 성실하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는 분. 주일 점심때마다 차와 커피를 준비해주시는 분. 사람들을 차량으로 옮겨다주시는 분. 학교에서 사랑으로 교육을 하시는 분. 여기저기 흩어진 자전거를 정리해주시는 분. 다른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 즐거운 대화를 만드시는 분 등등... 도무지 다 쓸 수 없는 분량의 사랑으로 사랑방공동체의 구석구석이 채워져있음을 실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 하면 얼마나 늘어날까요?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으며 살아왔으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삶으로 보여주신 깊은 신앙의 경지들을 본받아 보람차게 살기를, 하루하루 소망해봅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함께사는 이야기

##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씬 : 에스겔 18장 21~23절

인 도 : 이어진 전도사

중보기도 :

1. 세계평화를 선교를 위한 기도 <세계평화를 위해>  
스리랑카, 아르헨티나 등의 나라가 국가부도의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세계경제난 속에서 시민들의 형편이 나아지기를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메노나이트 서울지부>
  - 1) 매주 모이는 주일 오후 2시 모임을 통해 초기 기독교교회의 원형을 잘 배우도록
  - 2) 그리스도의 제자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 3) 삶과 믿음의 고백이 일치될 이루어 사회적 복음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 1) 수술 등 아픈 육체로 힘드신 지체들을 위해
  - 2) 세계성찬주일과 사랑방공동체 운동회를 위해
  - 3) 세례/입교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 <생활공동체 소식 >

느티나무가 옷의 색을 바꿔 입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사랑방 공동체는 알록달록 여러 색의 나무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생활공동체는 이제 정말 수확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고구마 줄기를 따서 햇볕에 널고 고구마도 신나게 캐내면서 공동체학교 학생들과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9월 생일자들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무사히 여행에서 돌아온 장성아 선생님을 축하하는 자리도 겸하여 가졌습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을 더욱 공동생활에 집중하자는 다짐을 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주 중에 몇몇 남성분들은 지난 태풍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지체의 주택 복구와 정비를 위해 함께 애써주셨습니다.

올 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 열매를 바래야 하는 때가 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 장영미 전도사 >